

#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수질보전정책연구: 낙동강 수계오염과 위천공단 조성에 관한 갈등 해결의 모색

김성수

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경북, 대구, 경남, 부산에 이어지는 광역을 흐르는 낙동강의 수질은 1960년대이래 인구의 도시집중과 산업화로 인하여 날로 악화되어왔다. 더구나, 기존의 공단 이외에도 위천공단 등 상당수의 새로운 공단 조성이 논의 및 계획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이후 지역의 개발욕구도 강화되어 이에 편승한 공단조성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졌는데, 이는 협의의 의미에서의 지역개발이 광의적 의미의 환경공동체를 위협하는 현실에 이르게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낙동강의 환경현황과 사회경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예컨대 수질오염현황과 공단조성현황 등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단위의 환경행정기관 등의 수질보전정책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의 지적과 각급 기관이 행해야할 개선책을 제시한다.

아울러, 위천공단 조성에 관한 지역간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유사한 사례를 해외와 국내에서 조사하고(Rhine강 및 팔당호 물 대협약),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및 협조, 지방의회간 협의체의 구성 및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주민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책들을, 예컨대 지역언론기관들의 활동 및 지역환경단체들 사이의 협의의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동일수계내의 개발을 둘러싼 갈등문제, 예컨대 금강수계내의 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시사를 준다.